

농산물은 폭락, 생필품은 폭등...농민도 시민도 ‘시름’

“생산비도 못건져” 해남·고흥·무안 농민들 내일 마늘 뿌리며 규탄 집회
계엄 이후 가공식품 74개 중 53개나 올라...물가 안정 대책 마련 시급

농산물 값은 폭락하고 생필품값은 폭등하면서 농민과 시민 모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 폭락한 농산물에 한숨=10일 찾은 해남군 북평면 마늘 농가에서 마늘을 크기별로 선별하던 농민들은 한숨을 푹푹 쉬었다. 최근 마늘값이 폭락하면서 기껏 수확해도 남는 게 없어서다.

마늘은 통상 9월 씨앗을 뿌리는 파종부터 이듬해 5월 말~6월 초 수확까지 10개월 간 손이 많이 가는 탓에 고령층이 농사짓기 힘든 작물로 꼽힌다.

해남의 경우 전남에서 남도종마늘 24%를 생산하는 주생산지다. 고흥(534.4ha) 다음으로 재배면적(486.5ca)이 많다.

남도 마늘은 알싸한 맛과 쉽게 무르지 않아 저장성이 강해 예로부터 김장김치를 담그는 데 많이 쓰인 종으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2023년에는 폭우로, 2024년에도 이상기후로 가격이 kg당 수매가격이 3500원으로 떨어졌는데 올해도 계약재배 단가가 상품 기준 1kg당 3500원에 그치면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는 것이다.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늘의 생산비는 1kg당 3445원이다. 전년(3187원)에 비해 258원 오른 수준이다. 그나마 실질적 체감 생산비는 훨씬 더 올랐다는 게 농민들 목소리다.

고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 작물인데도, 수매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농사를 계속 짓겠냐는 게 농민들 하소연이다.

박막례(여·77)씨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심해서 기대했는데, 4~6월 쌀쌀한 기온이 이어지며 마늘 생장이 멈춰버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년 넘게 마늘 농사를 지어온 허용식 해남군마늘생산협회장도 “제주지역 마늘 수매가가 1kg당 4300원인데, 우리 지역은 kg당 3500원에 수매가 되고 있어 인건비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kg당 4000원 수준은 돼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늘값 폭락으로 남도 마늘을 재배하는 고흥·해남, 신안(373.4ha)·무안(196.3ha)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이같은 농민들 입장을 감안, 오는 12일 무안(단위)농협과 농협 전남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산비도 못미치는 수매가 결정’을 규탄할 계획이다. 기껏 재배한 마늘을 뿌리는 파포면스도 진행하고 전남도, 농협 전남본부와의 대책 마련 면담도 연다.

마늘 뿐 아니라 양파, 배추 등 농작물도 비슷한 형편이다.

10일 기준 양파(상품·15kg) 도매가는 1만 274원으로 전년 동기(1만 8616원) 대비 44.81% 급락했다. 1kg 소매가도 2393원에서 1882원으로 21.35% 떨어졌다.

배추는 1포기 소매가는 전년 대비 3663원에서 3283원으로 10.37% 떨어졌다. 당근(1kg)은 전년 대비 5539원에서 3934원으로 28.81% 하락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농사



해남군 북평면의 한 마늘밭에서 자란 마늘이 이상기후로 제대로 크지 못한 채 수확됐다.

비용은 더 들어가고, 양파 생산량은 줄었고, 가격은 떨어졌지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소비 촉진 등 빠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 급등한 가공식품에 한숨=생산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폭락한 농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날 광주시 북구 오차동의 한 마트에서 만난 조희연(여·46)씨는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초·중·고등학교 삼남매를 키우는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의 가격이 크게 올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조씨는 “아이들 간식거리 몇 개 산 것 밖에 없는



10일 해남군 북평면의 한 마늘밭에서 농민들이 마늘 수확을 하고 있다.

데 10만원은 훌쩍 넘는다”며 “아이들이 한창 성장기라 치킨도 3마리 이상은 사기는데, 가격은 이미 예전보다 너무 올랐다. 물가가 올라서 배달시커떡기도 외식하기에도 부담스러워서 생활비 걱정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기준 가공식품 74개 품목 중 53개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일제히 올랐다. 전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다.

지난달 광주·전남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광주 122.21, 전남은 123.78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2%, 전남 3.7% 상승했다. 광주는 오징어채 65.8%, 초콜릿 19.6%, 고추장 17.6%, 비스킷

17.1% 올랐고 전남은 시리얼 24.3%, 김치 17.2%, 초콜릿 15.3% 올랐다.

광주는 지난 달 주류담배 물가 전년보다 0.8% 증가했고, 품목별로 맥주(5.8%), 과일주(3.0%), 소주(0.3%) 등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주류담배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2% 올랐고, 품목별로는 맥주와 소주가 각각 1.8%, 0.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전 정부가 방치했던 농산물가격과 물가 관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버스 파업 불편 언제까지...

광주 등하교·출퇴근 차질에 시민 불만 잇따라

노사 이견에 장기화 우려도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재개한 지 이틀째인 10일 노조와 사측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평소보다 10~30분 가량 늦게 도착하는 버스 때문에 등·하굣길, 출퇴근길 불편을 겪고 있어 “언제까지 불편을 참아야 하나”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비상 수송 대책’을 실시해 총 96개 노선, 880대의 버스를 운행했다.

평상시 102개 노선에서 예비 버스를 제외하고 버스 1000대를 운행한 데 비해 88%만 운행한 것이다.

문제는 연일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광주시가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면서 양측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못 하고 있어 파업이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조측은 “광주시에서는 노사 문제니까 노사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사측은 광주시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우리는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측에서 어떤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했다. 사태가 매듭짓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봐야하는데 아직 뚜렷한 답이 없다. 광주가 다른 지역과 같은 상황일 수 없고, 제정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연봉 8.2% 인상,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현충일 연휴 3일간 준법 투쟁을 해 왔지만 지난 9일부터 전면 파업을 재개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우리회사 약 써달라...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잇단 재판

전 국립나주병원장 첫 공판

고려계약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0일 202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나주병원장 A(63)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고려계약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4차례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기제 공무원으로서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제약사로부터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국립나주병원은 성분만 특정해 입찰을 하는

시공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상만 입찰할 수 있어 고려계약은 입찰에 참가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의약계 불법 리베이트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려계약이 국립나주병원장을 비롯한 190여개 의료기관에게 42억여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의사 319명, 제약사 임직원 21명 등 총 340명을 검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핵심 증인 검사 또 불출석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중요 증인인 당시 수사 검사가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0일 A(75)씨와 딸(41)의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과 검찰 양 측이 신청한 증인인 전직 검사 B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B씨는 2009년 사건 당시 갑갑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A씨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월 8일 열린 재판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현재 소제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 소환장조차 송달되지 않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장기화를 원치 않는다며 B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 측은 한 차례 더 소환을 시도해보고 증인 신청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달 1일 추가 증인 신문을 이어간 뒤

오는 8월 19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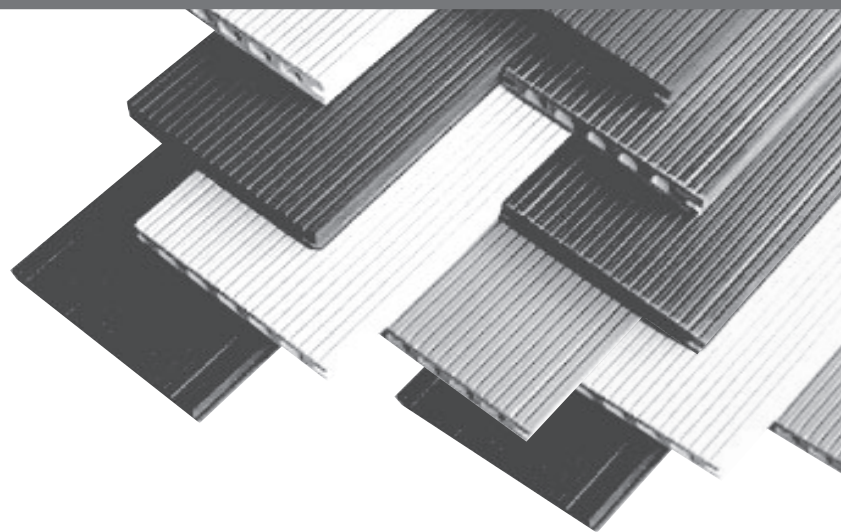
한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데크의 세대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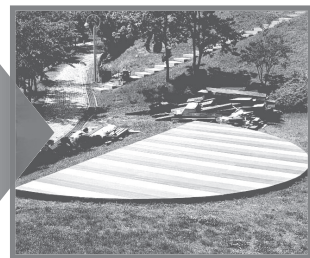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